

프로야구 LG 4위 굳히기... 중하위권 혈투

12경기 10승 2패 기록 5위 KIA와 승차 2.5경기

LG 트윈스가 시즌 막판 놀라운 승률로 4위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시즌 티켓 1장을 놓고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LG는 지난주(13~18일) 5승1패의 호성적을 올렸다. 2주 동안 12경기에서 무려 10승2패를 기록해 4위로 뛰어올랐다.

4위 LG(67승1무66패)와 5위 KIA 타이거즈(64승1무88패)와의 승차는 2.5경기다.

최근 LG 투수진의 선방과 타선의 집중력을 감안하면 포스트시즌행은 낙관적이다. 선발진의 안정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우규민과 데이비드 허프, 류제국이 선발승을 거두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9회초까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아 완봉승을 거둔 LG 선발 류제국과 동료들이 기뻐하고 있다.

특히, 황재균은 4홈런에 10타점을 쏟아냈다. 지난주 롯데의 팀타율은 무려 4할이 나 됐다.

반면 SK는 지난주 6전 전패를 당했다. 최근 8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6위로 내려앉았다.

지난주 7.13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타선의 선전이 무색하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위기 쇠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8위 롯데, 7위 한화 6위 SK, 5위 KIA와의 승차는 불과 3.5경기다. 막판 투혼을 발휘한다면 어느 팀이 5강행에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체력이다.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투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야수들도 타격 난조와 부상에 신음하는 선수들이 많다. 각 팀 사령탑도 선수 기용에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지막 10여경기에 따라 이번 시즌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산(88승1무48패)은 지난주 6전 전승을 거두면서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를 쌓고 있었다. 지난 2000년 현대 유니콘스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승(91승) 경신에 도전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연고지역 인택과 MOU체결

전북 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연고지역인 전라북도 중소기업과 MOU를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구팬을 위한 상생의 길을 걷는다.

지난 18일 수원전에서 MOU를 체결한 주식회사 인택(대표 이창선)은 2013년 전주시 지식산업센터에 문을 연 마스크 전문 제작업체로 신개념 마스크 같은 소비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형 벤처 기업이다.

인택은 세계 최초로 Inert 사출을 통한 필터 교환형 마스크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인증 및 중소기업청 EPC(성능인증)를 획득했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에 선정되면서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30여개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인택의 이창선대표는 "K리그를 대표하는 1등 구단 전북현대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함께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진 전북현대 어린이 마스크는 벌써부터 지역 팬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프리카, 중국 등 해외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판매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전국체전대비 강화훈련 선수단 격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17일 일 앞으로 다가온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강화훈련에 여념이 없는 전북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에 나섰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19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을 방문해 익산지역의 전국체전 대표팀인 이리공고 육상팀 남상고 배구팀, 호원대 검도팀 등 14종목 25명 258여명에게 선전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선수들에게 "우리 선수들이 강화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의 명예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수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지난 7월 18일부터 47개 종목 1천570명의 전북대표선수를 확정, 강도 높은 하계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레알 마드리드, 16연승 질주... 신기록 눈앞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16경기 연속 승전고를 울리는 기염을 토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우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파뇰과의 2016~2017 프리메라리가 4라운드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3월 8일 레안테전부터 모든 정규리그 경기를 이겼다.

정규리그 16연승이다.

수명의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가지고 있는 최다 연속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바르셀로나는 2010~2011시즌 호성 페르나우 감독의 지휘 아래 16연승에 성공했다.

1승만 더 올리면 이 최다 연속 신기록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22일 비야레알을 상대로 기록 작성에 도전한다.

기분좋은 선두질주도 이어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 승점 12점(4승)으로 1위다.

에이스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이 모두 결정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47분 히메스 로드리게스가 선제골을, 후반 26분 카림 벤제마가 추가골을 신고했다.

/김민근기자

군산출신 전인지, 프랑스 에비앙챔피언십 우승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스타 기록 갈아치워

군산출신 전인지 선수(22?하이트진로)가 남녀 통틀어 역대 메이저대회 최스타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인지는 지난 18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470야드)에서 열린 에비앙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더 줄여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83타로 정상에 올랐다.

세 차례나 거듭된 준우승 징크스를 날려버리고 공동2위 박성현(28·넵스)과 유소연(26·하나금융)의 추격을 4타차로 따돌린 완벽한 우승이었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 48만 7500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3위이자 한국선수 중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PGA투어 생애 첫 우승을 지난해 US여자오픈에서 이룬 데 이어 생애 두

번째 우승까지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는 진기록과 게다가 전인지는 24년 동안 깨지지 않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스타 기록도 갈아치웠다.

1992년 벤티 킹(미국)이 LPGA 챔피언십에서 적어낸 287타를 훌쩍 넘긴 전인지는 쟁아니(대만) 등 4명이 갖고 있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19언더파)도 경신했다.

또한 전인지는 제이슨 데이(호주)와 헨리크 스텐슨(스웨덴)이 세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최다 언더파 기록(20언더파)도 넘겼다.

전인지는 "부상에서 회복한 뒤 심리적인 부담이 사라졌는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결과인 것 같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지난 18일 프랑스 에비앙 르 뱅의 에비앙 리조트GCG에서 열린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경기에서 우승한 전인지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